

201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1.29(목)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보도의 정확성 심층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TV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화면을 통해 받고 있음.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진실성이 담겨져 있어야 함.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보도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해주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청소년 가출 내용에서 청소년가출 10명중 4명은 대화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자 개인의견인 것처럼 보임. 뉴스에서는 대화부족의 근거수치나 과학적 입증자료를 예시하거나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설선물세트 디저트 제품인기라는 보도내용은 롯데백화점 실적조사를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마치 백화점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음. 특정 백화점 사례보다는 전체 백화점 업계의 조사 분석 내용을 보도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19일 군인연금에 42년간 19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면, 긴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바람직한 보도사례임. 공무원 연금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연금들에 대한 분석보도가 시급하고. 증세를 논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세출 측면에서 지적할 사항이 없는지 찾아보는 세출분석 보도가 매우 중요함(이용우 위원)
- 27일 뉴스 보도에서 한국의 1인당 세금증가율은 OECD국가들 중에서 4번째로 높고 세금규모는 밑에서 6번째라고 보도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적은 세금, 적은 복지에서 많은 세금, 많은 복지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많은 복지의 선행과 증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임. 이런 점을 감안해 세입, 세출, 복지수준의 현황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등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보다 균형 있고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되었겠다는 생각임(이용우 위원)
- 27일 최경환 부총리 부탁했지만 대기업 채용 어렵다는 보도에서 기업의 채용은 정무적인 판단이나 요청보다는 경기, 기업상황, 노동유연성 등 시장환경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음. 특히 재계가 청년고용보다는 정규직 보호완화에 관심이 있다고도 보도했는데, 실상 정규직 보호완화가 바로 청년고용증가의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듯함. 차제에 청년고용

이 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보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이용우 위원)

- 29일 엔씨소프트 대표와 넥슨 대표간 경영권 분쟁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도화선이 된 건 엔씨소프트 대표의 부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녀와 관련된 어떤 점이 도화선이 되었는지가 빠져 있었음. 이 때문에 뭔가 정보전달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방송특성상 함축적인 보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의미전달이 되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함(이용우 위원)
- 29일 공정위, 국세청 등 과징금, 세금추징 관련 환급보도에서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등을 비롯해서 과징금, 세금추징 보도가 많은 반면, 잘못된 추징 등에 따른 환급보도는 찾아보기 힘들. 실제 기업들이 천억 원 이상의 조세불복 소송에서 승소율(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환급하는 경우의 비율)이 30%가 넘고 있음. 과징금이나 세금추징은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우리나라 관련부처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합뉴스TV를 비롯한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음(이용우 위원)
-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보도였고, 이 보도로 인해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와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등 많은 개선책이 제시 되고 있음. 아쉬운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보도에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보육전문가들의 패널이 없었음.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을 심층 취재하여 보육교사 현실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와 관련 된 보도를 신속히 전했는데 도핑테스트와 관련된 전문가의 해설이나 인터뷰 방송이 없어 아쉬움.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제재 위원회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초빙하거나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신속하고 심도 깊은 사안분석이 가능할 것(최진녕 위원)
- 12월 24일 '뉴스초점' 지난해 7월 정부가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 시점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였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25일 '비즈 톡톡' 겨울여행 관련 내용에서 스키장마다의 이색 서비스를 소개하여 좋았으나 소개한 서비스가 각 스키장마다의 단편적인 부분뿐 스키장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 고객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음. 또한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와 편의시설, 강습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으면 함(성낙용 위원)

▲ 주요 사건사고 보도시 유의사항

- 뉴스에 공개되지 않은 숨은 영상들과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취재기자들의 뒷모습을 전달하는 '카메라 시선' 프로그램은 현장감 있어 매우 신선함. 다만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현장"은 분노한 학부모들의 감정이 그대로 보도되고 어린이집 원장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모습은 자칫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됨 (김용주 위원)
- 경찰의 필로폰 환각상태 고속도로 운전자 체포 보도에서 필로폰 투약 외제차 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 차량 정지시키는 과정이 매우 위험해 보였음. 운전자가 하차를 거부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찰진압과정이 그대로 방송되었음. 그 폭력성이 정도를 넘어 청소년과 노약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됨(최진영 위원)
- 7일 강남엄친아 40대 가장 살인 사건 보도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망자에 대한 존중으로 시신 운구용으로 보이는 자루 모습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양승찬 위원)
- 인천 보육원 아동학대 영상은 사회적 파장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아동학대 장면이 지나치게 많이 반복되어 뉴스에서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어 재발을 막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너무도 심한 폭력 장면을 며칠간 계속해서 방송되는 것은 언론이 오히려 자극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었음(이용진 위원)

▲ 뉴스의 가치와 정체성을 고려해야

- 북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함. 보도의 양이 불필요하게 많을 뿐 아니라 뉴스 가치가 의심되는 뉴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예를 들면, 12일(월)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김정일 생일 차분", "생일에 침묵" 등 굳이 방송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뉴스라고 생각함. 또한 4일(일) 8시 반 뉴스에서는 김정은의 결혼 인맥과 최룡해 결혼 인맥 뉴스, 김일성부터의 혼맥을 살펴보는 뉴스가 나오는데 추측 기사이거나 뉴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뉴스 라운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뉴스 라운드 시청대상이 누구인지 뉴스 아이템 선정은 어떤지 등 이해가 되지 않고 국제뉴스와 국내뉴스가 혼재되어 일관성이 결여된 듯 함 또한 '와글와글 세계'에서는 뉴스가치가 크지 않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 같고,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제시하는데 이는 없어도 될 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음(최현철 위원)
- 뉴스 브런치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아침 6시 40분에 방송한 뉴스를 재방송하는 수준이어서 뉴스 브런치의 정체성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뉴스 브런치라는 제목에 맞게 조금 격식을 벗어난 포맷도 괜

참을 것 같음(최현철 위원)

▲ 자막, 부적합 표현, 화면구성 등 개선 필요

- 1일 '뉴스 Y' 김정은 신년사 방송 후 광고(E 채널 광고)방송시 화면 하단에 신년사 관련 붉은 바탕에 굵은 자막이 지속적으로 방송되는 오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화면 하단 속보자막은 실시간 속보라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를 기대하는데 길게는 이틀 이상 반복(1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기부금 모집 피소된 박원순 서울시장 무혐의', '장충체육관 리모델링')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스크롤 뉴스가 늦게 보도(1월 13일 오후 4시 아시안컵 경기 한국이 쿠웨이트를 1:0으로 이겼고, 오후 6시 호주가 오만에게 승리해 8강이 확정 되었음에도 시경까지 '8강 눈앞'으로 보도)될 때도 있어 하단 자막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이용진 위원)
- IS추정 리비아 호텔습격 사망자 9명 내용에서 헤드라인에 한국인 포함이라고 나왔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왔음. 이럴 때는 한국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진실성 있게 표현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연말정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세제'를 '세재'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고 '월급쟁이'라는 표현은 대상을 낮추어 표현하는 말로서 '직장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여겨짐. 또한 아시안컵 뉴스 헤드라인에서 '단두대 매치'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모든 연령층의 시청자가 보는 보도 프로그램인 만큼 자극적인 단어를 지양하기를 권면함(이현규 위원)
- 12월 24일 '뉴스현장14' 개각 관련 자막에서 정홍원 총리를 후원총리로 표현했고 28일 '옴부즈맨Y' 클로징 이후 화면 하단에 제작진 그림자 나와 스튜디오 영상에 주의가 필요함(양승찬 위원)
- 1일 '뉴스 Y' 김정은 신년사 방송시 화면 우측 상단에 '현장연결 Live' 자막이 계속 표시하였는데 김정은 신년사는 조선중앙TV방송이 녹화 방송하는 것을 수신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현장연결 Live'라는 자막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광고 중 속보를 통해 신년사를 인용한 자막은 마치 북한 홍보물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음. 무엇이 뉴스인지를 파악하고 자막을 제시하기 바람(성낙용, 양승찬 위원)
- 1월 28일 '연합뉴스20' 방송 중 날씨예보를 진행하는데 죄측하단에 수화통화자가 등장해서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는데 기상캐스터가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동선이 겹치게 되어 매우 산만한 화면이 되었음. 전체적인 화면 배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음(이용진 위원)
- 1일 저녁 8시 미국 MLB 류현진, 강정호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초기 화면은 넥센의 박병호 선수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 확인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6일 뉴스워치 앵커의 어깨걸이 사진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후보 앞으로 배

치되어 균형이 깨져보이는 인상을 받음. 박지원 후보가 불리해 보이는 사진 처리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양승찬 위원)

▲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제작 의견

- 2015년은 UN이 빛과 광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세계 빛의 해'로 1월 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막식이 개최되었음. 한국광학회 또한 선포식(1/28)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빛 관련 행사가 열릴 계획임. '빛'은 인류의 문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과학적 업적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이러한 과학 행사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중에게 소개하는 뉴스 등 빛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기획을 검토요망(이헌규 위원)
- 시청 중에 실시간 뉴스 스크롤에 지난 기사가 나온다거나 오타가 있는 등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시간 한줄 뉴스를 만든다면 어떨까 함. 실시간 스크롤 뉴스를 한 줄씩 리포팅하는 프로그램을 30분 분량으로 하루에 3번정도 편성해보면 어떨지 함(강대인 위원장)
- 24일 '이슈터치' 인류난제 창의로 해결 X연구 본격 추진 내용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헌규 위원장의 단독 질의응답 형식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이나 명쾌한 설명은 소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음(이헌규 위원)
- 엽기사건 보도비중 줄여주었으면 함. 최근 사회부문 보도내용에 각종 엽기사건 보도가 과도하게 연일 톱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이용우 위원)

▲ 앵커, 리포트, 출연자 및 기타 의견

- 뉴스브런치 앵커들의 복장은 정장이어서 딱딱해 보이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는데 자연스러운 복장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10일 의정부 화재 속보는 취재 기자, 목격자를 활용하여 현장을 잘 연결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앵커가 취재 기자와 목격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여 이들이 추측하여 답변하도록 함. 추측성 답변을 유도하는 것 자제하고 중간 중간 앵커가 소식을 정리하는 것 필요함. 취재기자가 너무 많은 반복보도를 현장에서 하는 것은 시청하는 입장에서 과한 보도로 보임(양승찬 위원)
- 11일 오전 명품리포트 맥의 사회보도 부문에서 최근 땅콩회항 파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카다미아넛 소비를 전달하면서 직접 먹어 보고 리포트를 진행함. 기자의 체험을 직접 보여주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12월 15일 저녁 10시 개각 관련 대담에 출연한 경희대 객원교수의 발언 중 습관적인 반말투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듣기 매우 거북함. 주의를 요함(양승찬 위원)
- 홈페이지 뉴스검색에서 날짜순, 제목순, 인기순, 조회 순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검색결과는 같음. 검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람(김연화 부위원장)

- 12월 28일 '뉴스 리뷰'에서 대한항공 회항과 관련한 보도에서 '오빠 회사 될 거야'라는 초등학교 시절의 조현아 전부사장의 말을 성우가 재연하여 전달함. 뉴스에서는 재연하는 육성과 영상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음(양승찬 위원)
- 연합뉴스TV로 통일하여 전달하는 것은 일관성 있고 좋음. 뉴스Y보다 매체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별 케이블사의 지역방송으로 전환되는 화면에서는 여전히 '뉴스Y' 옛 로고가 나오고 있으니 확인하여 변경 조치하면 좋을 것 같음. 앵커의 노트북 뒷면에 붙인 연합뉴스TV 로고는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제대로 된 로고가 아닌 갑자기 싸게 제작한 모습이 보임. 빨간색 바탕의 흰색 글씨로 제대로 된 비율로 로고를 만들어 부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양승찬 위원)
- 12일 오전10시 에 열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TV 중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PC, 모바일에서는 회견 말미쯤 접속자가 폭주되었는지 끊김 현상이 있었음. 최근 인터넷 생방송이 버퍼링이 잦은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임(이현규 위원)
- 신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특징 등을 정리해서 시청자위에 알려준다면 시청에 큰도움이 될 것 같음(양승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22일 이석기 재판 관련 내용에서 다른 경쟁채널과 비교시 기자의 현장 리포트와 패널의 토론내용 등 돋보였음(강대인 위원장)
- 청와대 출입기자 등 기자들이 출연해 리포트 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패널보다도 훌륭했음. 내부의 능력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패널로 방송에 출연하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 '하모니'와 미니 다큐 '오늘' 프로그램은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임(김용주 위원)
- 최근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가동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검색기능도 개선된 듯하다. 하드웨어를 개선한 것인지 소프트웨어 운영역량이 발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연합뉴스TV를 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며, 방송 시청자 증가에도 적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이용우 위원)
- 김 모군의 IS 지역 잠입 의혹 사건 보도에서 김 모군이 터키를 통해 시리아 지역 킬리시 시로 밀입국한 의혹 보도가 향간의 화재가 되었는데 사건 초기에 바로 군사문제 전문가를 패널로 초대하여 방송하는 등 다른 채널에 비해 한발 빠른 심층 분석 보도를 한 것으로 평가함. 앞으로도 국제적인 분야 보도에서 역량이 빛 날 수 있길 바람(최진녕 위원)
- 12월 24일 '뉴스초점' '국제사회는 지금 사이버 전쟁 중?' 주제로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이 출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니픽쳐스의 영화 더 인터뷰와 관련한 해킹사건이 북미간

사이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 영화 더 인터뷰를 개봉하게 된 배경,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해킹으로 인한 한수원 문건 유출 건 등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1일 '뉴스 Y'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를 발 빠르게 방송하여 주어 좋았고 또한 패널까지 출연시켜 김정은 신년사의 각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4일 '뉴스 Y'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빙판길 낙상주의' 같은 보도는 시의적절한 보도라 생각됨. 특히 겨울철 낙상을 가장 많이 당하는 노년층의 경우 외출할 때 등산용 스틱이나 지팡이를 준비하고 또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균형을 잡고 걸으면 넘어지더라도 고관절, 척추, 얼굴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비스듬히 내려오는 게 안전하다는 등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어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음(성낙용 위원)
- 25일 '뉴스와이15 이슈진단'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안보경쟁 관련 내용에서 미, 중, 러, 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안보경쟁을 분석하여 군사정책에 대한 진단을 기사와 전문가의 설명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었음. 특히 패널로 나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설명은 각국의 주요 군사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각국의 속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석해 주어 군사정책에 관해 시청자들도 관심 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어 유익했음(성낙용 위원, 강대인 위원장)
- 뉴스&리뷰 이슈편지 코너, 긴급진단 코너에서 기자들이 직접 나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매우 좋음(양승찬 위원)
- 12일 오전10시에 열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생중계를 TV뿐만 아니라 PC, 모바일로 원활한 시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시청에 용이하였음. 또한 생중계 이후 다시보기를 각 질문 건별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보기에 용이하게 한 점과 수화방송을 함께 보여주어 시청자를 배려한 점이 돋보임(이헌규 위원)
- 24일 '이슈터치' 인류난제 창의로 해결 X연구 본격 추진 내용에서 미래부에서 최근 새롭게 발족, 추진 중인 'X연구 사업'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포맷이 새로웠음. 연구 사업의 목적과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임.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국민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알기 쉽게 소개해줬다는 점과 현 시점의 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 뜻 깊은 코너였음. 앞으로도 과학을 비롯한 사각지대의 다양한 정부사업과 정보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코너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람(이헌규 위원)
- . (끝)